

# 탄소 제로 구현 위한 세부 계획 세운다

### 전주시, 연말까지 9개 추진전략 구체화 '2050 탄소중립 세부추진계획' 수립키로

전주시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의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한다.

시는 올 연말까지 '전주시 2050 탄소중립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기존 정책만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여야 하는 '2050 탄소중립'의 달성이 어려운 만큼 시장 전반을 과감하게 탄소중립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체계적인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성과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생태교통 인프라·그린모빌리티 선도를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확산 ▲건물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산단 조성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폐기

물 저감 및 녹색지원 전환 ▲로컬푸드 활성화 ▲시민환경교육 ▲탄소중립 실행 기반 구축 등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발굴한 9개 추진전략을 구체화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시는 ▲1단계(2021~2030) ▲2단계(2031~2040) ▲3단계(2041~2050)로 감축로드맵을 설정한 뒤 온실가스 배출량을 30%에서 100%까지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지난 2017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결과 도로·수송과 상업 부문에서 약 60%의 비중을 차지한 만큼 생태교통과 에너지 대전환 체계 구축, 녹색산업 전환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 기금 조성 및

시민 탄소중립 실천 교육 및 활동, 민·관 거버넌스 운영 등의 시민 참여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 태스크포스팀과 전문가 그룹, 민·관 거버넌스 등이 함께하는 전주시 탄소중립도시 실행계획 추진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어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고도화하고, 세부 실행계획들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22일 ▲하천-전주생태하천협의회 ▲녹지-천만그루 정원도시추진위원회 ▲교육-전주원도심교육공동체 ▲에너지-에너지전환시민포럼 ▲교통-생태교통협의회 ▲도시계획-도시계획협의회 등 6개 분야별

실행기구로 구성된 생태도시 민관협력기구의 출범시켰다.

또 2035년까지 온실가스 50%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만들자는 '전주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탄소 중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전지구적 과제이자 30년 후 우리 아이들이 숨을 쉬고 꿈을 꾸며 살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시정의 모든 정책들을 점검하고 분석하여 탄소 제로를 구현하고,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일상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해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기자

## 시민들과 새로운 관광 콘텐츠 찾는다

### 전주시, 28일까지 '지속가능 여행학교 1기' 참여자 25명 모집

전주시가 한옥마을과 같은 관광 명소 외에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시민들과 함께 찾아 나선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전주의 곳곳을 경험하며 숨겨진 관광콘텐츠를 발굴하는 '2021 지속가능 여행학교 1기' 참여자 25명을 모집한다.

'전주사람, 전주를 여행하다'를 주제로 운영되는 이번 지속가능 여행학교는 전주를 걷고, 보고, 추억하고 발견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시민이 직접 전주의 관광콘텐츠를 찾고 지역 관광자원의 활용 가능성을 발견하는 활동으로, 4기까지 운영된다.

여행학교는 다음 달 2일부터 7월 21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교육 및 워크숍, 체험 및 현장 활동 등 8주의 커리큘럼으로 기획됐다.

여행학교장인 김용택 시인의 특강과 함께 ▲오재철 여행사진작가의 '여행 인문학' 특강 ▲'사람을 여행합니다' 저자인 김현두 여행작가 특강 ▲이동미 여행치료사의 '영화와 전주여행' 특강 ▲전주에 적용 가능한 도시 관광 시트투어 벤치마킹 등이 이어진다.

특히 참여자들이 한옥마을 등 대표 관광 명소 외에 새로운 로컬 관광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도록 서학예술마을과 원색명화마을, 전주 영화제작소 등에서 현장체험이 진행된다.

/김윤상기자



지속가능 여행학교에 참여를 원하는 만 19세 이상 시민은 네이버 폼(<http://naver.me/sivWqNqU>)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위드앤씨 교육운영팀(010-8445-7257)으로 문의할 수 있다.

전주시 관광거점도시추진단 관계자는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매력적인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지속가능 여행학교가 새로운 시각으로 전주를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관광거점도시 전주를 잘 알릴 수 있는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 “온라인 플리마켓 ‘전주 야호 라이브커머스’ 참여하세요”

### 전주시, 26일까지 기존 야호시장 참여자·온두레공동체·사회적기업 대상 참가팀 접수

온두레공동체와 사회적기업이 참여하는 시민정서가 홈쇼핑처럼 소비자와 판매자가 만나는 라이브 커머스로 열린다.

전주시는 오는 26일까지 기존 야호시장 참여자와 온두레공동체,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1 전주 야호 라이브커머스'에 참여할 10개 팀을 접수한다.

전주 야호 라이브커머스는 당초 전주종합경기장과 객사길, 첫마중길 등에서 물품 판매와 문화공연 등으로 펼쳐져왔던 전주 야호시장 등 플리마켓을 최근 비대면 소비문화 트렌드를 반영해 온라인으로 여는 프로젝트다. 참여자들은 그림,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을 활용해 판매자와 소비자가 즉각적으로 소통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장을 만들게 된다.

지원 자격은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있는 전주시민과 전주시 소재 사업



전주종합경기장과 객사길, 첫마중길 등에서 물품 판매와 문화공연 등으로 펼쳐져왔던 전주 야호시장 플리마켓 모습.

장 운영자로, 전주를 상징하고 스토리가 있는 특색 있는 상품과 3일 이내에 배송할 수 있는 상품, 스마트 스토리 등 오픈마켓 운영 경험이 있는 자의 상품이 우선 선정 된다.

시는 선정된 단체를 대상으로 판매

전략 수립, 상품별 판매 스토리 구성, 영상촬영 리허설 등 1:1 컨설팅을 지원한 뒤 다음 달 말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판매 촉진을 위한 이벤트 상품과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시는 이 라이브커머스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활동이 어려워진 플리마켓 소규모 셀러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명숙 전주시 마을공동체과장은 "이번 라이브커머스 사업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자진 셀러들에게 새로운 판로를 제공하고 새로운 시장에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온두레공동체와 플리마켓에 관심이 있는 시민, 사회적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은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rhddud0713@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도심 곳곳서 무더위 그늘막 운영

여름철 길을 걷다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이 횡단보도 근처와 교통섬 등 곳곳에 설치된다.

전주시는 오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대책 기간 동안 기존 176곳 외에 주민센터 및 주민의견을 수렴해 효천지구와 예코시티 등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사거리에 그늘막을 40개소를 추가해 총 216개소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7년에 처음 설치된 무더위 그늘막은 여름철에 도심 내 보행자에게 그늘을 제공해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 보행에 지장이 없고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확보에 지장이 없는 곳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시는 그늘막 설치 지역 동 주민센터 직원을 전담 관리자로 지정하고, 통장이나 지역자율방재단원, 인근 상점 관계자 등을 관리 담당자로 추가 지정해



그늘막 관리·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태풍의 영향권으로 강풍이 예상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우려될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늘막을 접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김정석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은 "무더위 그늘막 뿐만 아니라 버스승강장 에어컨과 냉방기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야호학교, 제2회 야호 아카데미 강연회 20일 개최

전주시 야호학교(교장 장경수)는 오는 20일 야호학교 인후공간에서 청소년 교육 관련 전문가와 학부모 등과 함께 2021 제2회 야호 아카데미 강연회를 개최한다.

'놀이가 큰 사람을 만든다'를 주제로 열리는 강연회에는 박은규 한국계

임파학교등학교 교사와 개그우먼 김세아 씨가 초청돼 강연에 나선다. 박은규 교사는 최근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여부로 관심이 높아진 이스포츠클럽 중심으로 프로게이머에 대한 강연을 실시, 김세아 씨는 웃음과 즐거움을 주는 것을 좋아했던 그녀의 인생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강연회 후에는 어울림 시간을 통해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장도 마련될 예정이다.

야호 아카데미 강연회는 지역 내 창의교육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강연 기획부터 강연자 발굴, 홍보,

진행까지 시민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우영영 전주시 교육청소년과장은 "지역 내에서 이러한 강연회를 열어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교육을 주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야호 아카데미를 통해 청소년 교육 관련 전문가, 학부모, 청소년 등 시민들과 소통하는 장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